

## 결핵예방교실에 오세요

저는 보건소 경력 8년 6개월, 그중 결핵실 근무는 1년 3개월로 보건소에 계신 많은 분들에 비하여 길지 않은 경력을 갖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결핵실 근무를 하다 보니 간호사로서의 의학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 해주는 카운셀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인간호 역할을 발휘 할 수도 있는 곳이죠. 전국의 보건소 결핵실에 계신 선생님들께 저의 조그마한 이야기가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면 지면을 통하여 뵈고 싶습니다.

흐릿한 잿빛 하늘이 눈이 오려나? 올겨울엔 눈이 많고 춥다는데 어쩌면 우리실에 찾아오는 환자들에게겐 겨울이 더 길지도 모르겠다.

결핵실에 배치받아 근무한지 이제 1년 하고 3개월,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내겐 보건소에서의 근무기간중 가장 보람되고



### ▶ 결핵예방교실

월1회 일반주민과 결핵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강의 내내 질문이 오갈정도로 유익한 시간이 된다.

사명감을 가지며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던 것 같다.

때론 환자나 가족들 설득을 하다가 들으려 하지 않을때 답답함과 좌절감도 가져왔지만……

2000년대를 눈앞에 두고 선진국 대열에 선 우리의 현실속에 결핵이란 질병은 많은 이들에게 어찌먼 잊혀진 질병으로 생각될지 모른다.

결핵으로 판명 등록 되어지는 대부분의 환자들도 처음엔 결핵이에요 하면 의아해 “결핵이요, 그건 옛날 못먹고 가난한 시절 질병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라며, 당혹감, 창피함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다.

심지어 어떤 이는 “필름좀 주세요, 내가 잘 아는 다른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 받을테니”라면서 결핵진단에 대하여 의문점을 제기하곤 한다.

그러나 나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대부분은 수궁 투약을 시작하신다.

1~2개월 후 약을 타러 와서는 “몸이 좋아졌어요”, “기침, 가래가 많이 없어졌어요”라는 말을 들을때면, 왠지모를 힘과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

처음 결핵업무를 맡고서는 업무익히기에 바빠 환자관리 및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쓸수가 없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날무렵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지식도가 어느정도 습득되어져 환자 및 가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다.

환자등록 당시 투약방법, 가족검진의 중요성, 양성환자의 경우, 가래, 침 등



의 처리방법, 등을 설명드려도 이튿날이면 전화상담이 빗발친다.

그래서 생각해낸것이 “결핵예방교실” 프로그램이었다.

월1회, 일반주민, 결핵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96년 5월 31일부터 시작 해오고 있는데 참석 대상자에게 안 내문 발송, 유선 및 생활정보지등에 많은 홍보를 하였다. 기대한 만큼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20-25명선), 효과와 함께 반응도는 상당히 좋았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자료는 결핵홍보책자 및 교육용 책자를 활용한 O·H·P를 제작하여 강의를 하는데 비교적 이해되기 쉽고, 꼭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한다.

결핵의 (발병, 올바른 치료법, 예방법)등, 환자는 물론 일반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참석 하시기 때문에 강의 내내 질문이 오고간다.

등록당시 설명을 드렸건만 새삼 물어 보신후 이제 이해가 된다는 70대 노인환자분도 있고, 병원에서 5개월째 치료중인 30대후반 여자 환자는 “병원에 가면 결핵약 타러 다니는게 창피하여 물어 볼 것도 못 물어보고 도망치듯 약만 타오기에 바빴다”면서 결핵에 관한 궁금증이 많이 떨어진것 같아 고맙다고 할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무엇보다도 전염성 환자인 경우 본인 스스로가 타인에게로 전염원인을 인식시켜주는데 이 결핵예방교실 교육이 큰 역할을 한다.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 “집안식구 끼리 전염 운운 하며, 조심하라는 충고를 주면 몹시 서운해 하며 “내가 죽을 병 걸렸나”라고 반문 하시던 분이 교육을 듣고 와서는 본인 스스로가 손주들과 접촉을 피하시며, “한달만 먹고 나면 괜찮다니 그때나 들려라”라고 말씀 하셨다면, 하마트면 고부간의 갈등까지 갈뻔 했는데…… 라고 어느 며느리는 전화를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반복 교육의 효과에 새로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좋은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내용을 보충, 프로그램 운

■  
**투약중단자의 수를  
가능한 최소화하여  
결핵의 전파예방을  
차단하는 것이  
보건소 결핵실 담당자의  
큰 임무일 것 같다.**  
■

영에 심혈을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하지만 결핵실에서 환자관리를 하다 보면, 한 두달 약을 먹고 종적을 감추어, 경찰서 등에 협조 요청을 하지만 찾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나 이제 기침 안해, 또 약 지켜워, 안 먹어”라고 투약을 거부하는 사람,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제아무리 설득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만날때면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 결핵실에서 관리중인 환자들은 이상하게도 투약중단 양성환자가 많다.

처음 투약일을 지키지 않았을때 약을 들고 가정방문을 가 전달 하여 주기도 했지만 별 효과가 없는듯 하였다. 하지만 꾸준한 설득과 상담으로 환자들을 대했다.

약이 있어도 챙겨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말이다.

지금 결핵과 싸우면서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약을 드시는 모든분들께 용기와 격려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투약중단자의 수를 가능한 최소화하여 결핵의 전파예방을 차단하는 것이 보건소 결핵실 담당자로서의 가장 큰 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투약중단자의 숫자가 우리 보건소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숫자로 불어난다고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  
결핵과 싸우면서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약을 드시는  
분들께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

한편 국가에서도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송 미 숙

평택시 보건소 결핵실